

## SPE 변별적 자질의 몇 가지 문제들

## 전 상 범

다음은 Ewe 어의 자료이다.

zrɔ̃	'to be smooth'	dru	'to be bent'
ɲra	'to rage'	fle	'to pluck'
lɔ̃	'to love'	glamaa	'uneven'
kpla	'to intertwine'	litsa	'chameleon'
mɫagoo	'thick'	dzre	'to quarrel'
gblaa	'wide'	ɣla	'to hide'
lolo	'to be large'	xloloo	'rough'
wlu	'to dig'	tsro	'bark(of tree)'
βla	'suddenly'	φle	'to buy'
srɔ̃	'wife'	blema	'formerly'
lɔ̃kle	'leopard'	dolele	'illness'
hle	'to spread out'	ɲlɔ̃	'to write'
vlo	'to go far away'	yre	'evil'
atra	'mangrove'	adoglo	'lizard'

알려져 있다시피 Ewe 어에서는 [l]과[r]의 두 유음은 하나의 음소를 형성한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의 기저형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위의 자료를 살펴보면 [l]과[r]뒤에는 모두 [a, e, i, o, u, ɔ̃, ɔ̃] 등의 모음이 오므로 후속하는 음은 두 유음의 상보적 분포를 결정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에 오는 음들을 살펴보면 [r]은 [t, d, s, z, ɲ, y] 뒤에서 일어나며, [l]은 그 밖의 음들 뒤에서 일어난다.

이와 같은 경우를 SPE에서 제안된 변별적 자질에 의해 기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t, d, s, z, ɲ]만을 위해서는 [+coronal]이라는 자질 하나면 족하다. 그러나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r]앞에는 [y]가, [l]앞에는 [w]가 온다. SPE에선 [y]와 [w]모두에게

[- coronal ]의 자질이 부여되어 있다. [y]와 [w]는 각기 [- back ][- round ], [ + back ][ + round ]의 자질로 구별되지만 [ ± back ] 이나 [ ± round ] 의 어느 자질로도 뒷 자리의 상보적 분포를 나타낼 수 없음을 분명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Halle, M. and K.P. Mohanan(1985) *Linguistic Inquiry* 57-116에 발표한 "Segmental Phonology of Modern English" 의 p.85의 각주에서 "Counter to SPE, we assume that [i], [I] and [y] are [+ coronal]."이라고 하여 종래의 주장을 수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같은 새로운 제안에 의하면 Ewe어에서의 [l]과 [r]의 분포는 다음과 같은 규칙에 의해 설명된다.

$$l \longrightarrow r / [ + \text{coronal} ] \underline{\quad}$$

SPE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

$$/ \text{고프} + \text{다} / \longrightarrow [ \text{고투다} ]$$

구순음인 /ㅍ/나 /ㅂ/ /ㅃ/뒤에서 /으/가 [우]로 구현되는 것은 현대 한국어에서 흔히 관찰되는 현상이며, 역사적으로도 /물/ > /물/에서 보듯 /으/는 구순음 뒤에서 /우/로 바뀌었다. 이것은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등화작용의 결과인데, SPE의 제안대로라면 이같은 현상도 설명하기 쉽지 않다. 이런 경우 Hyman(1975, 53f)의 제안처럼 [± labial]이라는 자질이 있으면 위의 현상은 간편하게 설명할 수 있다.

한편 Ewe어의 [l], [r]의 분포도 다음과 같이 바뀌어 쓸 수 있다.

$$l \longrightarrow r / [ - \text{labial} ] \underline{\quad}$$

[r] 앞에 나타나는 [t, d, s, z, p, y]는 모두 [- lab]의 자질을 가지며, [l] 앞에 나타나는 음들은 모두 [+ lab]을 갖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음에 살펴볼 영어의 예들은 조음음성학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한, 위에서처럼 자질을 바꾸거나 새로운 자질의 제안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Bronstein(1960)의 *The Pronunciation of American English*의 p.128에는 미국 남부 지방에서 help, shelve, milk, film 등이 각기 [ heʊp ], [ ʃeʊv ], [ mɪʊk ], [ fɪʊm ] 등으로 발음되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 즉, l → ʊ 의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자음인 /l/을 모음인 [ʊ]로 바꾸는 것이 SPE 에서 제안된 자질에 의해 어떻게 표현되는가의 문제 이외에도, 이처럼 표현된 규칙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인가의 문제가 있다. /l/→[ʊ]는 음향음성학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의 등화작용이다. 스펙트로그램상으로 [l]과 [ʊ]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음향음성학적인 등화작용은 리벳.머마계 언어들에서 발견되는 /p/ → [o]나 /t/ → [ɛ]의 형식적 음운현상에서도 볼 수 있다. 이들은 자음 → 모음의 변화이긴 하나, 이들의 형성음, 특히 제 2 형성음이 매우 인접해 있다. /p/와 [o]는 모두 제 2 형성음이 700Hz 근처에서, /t/와 [ɛ]는 ], 800Hz 근처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서울대 사대 영어과 교수)